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이덕주*

1. 머리글

1910년 4월 2일 오후 5시, 마지막 구절 번역을 마친 후 서울에 있는 영국성서공회 총무 밀러(H. Miller)에게 ‘번역 끝남’(Translation finished)이란 전보를 보낼 수 있었다.¹⁾

남 장로회 선교사 레이놀즈(W. D. Reynolds)의 증언대로 1910년 4월 2일, 구약의 마지막 구절 번역을 끝내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대장정의 막이 내렸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로소 신·구약, 성서 전체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신·구약, 성서 전체를 우리말로 완역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세계사가 증명하듯 성서 번역은 기독교 경전의 번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던 성서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중세가 시작되었고 라틴어 성서가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종교개혁 시대가 열렸다. 이후 성서가 각 나라 방언으로 번역되면서 각 국가들이 개방과 개혁의 현대사를 열어 나갔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로스가 조선인 번역자들과 함께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한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한국 교회사

1) W. D. Reynolds,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1:7 (1935), 118.

1876년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 비로소 외국과 근대적 개념의 통상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번역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인쇄한 1882년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서구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5년 인쇄된 이수정 역 성서를 갖고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의 개화와 근대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일제의 침략, 지배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즉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한일수호통상조약(1876년)을 체결,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은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 청일전쟁(1894년)과 명성 황후 시해사건(1895년)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내정 간섭과 통제를 추진하였고 러일전쟁(1903년)과 을사 5조약(1905년), 헤이그 밀사 사건과 정미 7조약(1907년) 체결로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국권을 억탈하였다. 이런 ‘민족의 시련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은 도착 즉시 성서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1900년 신약, 1910년 구약 번역을 마쳤다. 공교롭게도 신·구약 번역을 완료한 1910년에 소위 ‘한일합병’이 이루어져 1911년 인쇄된 신·구약 합본 『성경전서』는 ‘일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경전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1910년에 이루어진 신·구약 한글 성서 완역의 교회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초기 한글 성서 번역과 출판 과정을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1910년 번역을 끝내고 이듬해 출판한 『성경전서』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120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1세대’(The First Generation)²⁾ 한글 성서로서 『성경전서』가 지닌 신학적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글 성서 번역사에서 2세대 성서는 1937년에 출판된 『개역』 성경전서, 제3세대 성서는 1977년에 출판된 『공동번역』, 그리고 4세대 성서는 1993년에 출판된 『표준새번역』 성경전서라고 할 수 있다.

2. 초기 한글 성서 번역과 출판 과정

한국인의 성서 접촉은 19세기 이양선(異樣船)의 내한에서 시작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816년 9월 서해안 탐사 차 비인만에 접근한 영국 함선 알세스트호를 탐문하기 위해 승선한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 그 배 선장 맥스웰(M. Maxwell)에게 영어 성서를 한 권을 선물로 받은 것이 그 첫 번째 예다. 그리고 1832년 7월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K. Gützlaff)가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로드 암허스트호를 타고 서해안 고대도에 상륙, 한 달간 머물면서 조선 정부에 개방을 촉구하는 동안 그 지역 선비의 도움으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866년 9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 접근했다가 평양 관민과 충돌이 빚어져 소실되고 그 승무원이 피살되었을 때 그 배에 동승했던 영국 선교사 토마스(R. J. Thomas)가 대동강가에서 처형되기 전 뿌린 한문 성서를 평양 주민들이 주워 읽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이양선과 외국인을 통해 소개받은 ‘외국어’ 성서로 한국인은 서양과 함께 기독교라는 낯선 종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복음의 미개척지, 선교 대상지를 확인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복음 선교의 준비 단계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1870-1980년대 외국인 선교사들과 토착인 개종자들에 의해 나라 밖, 중국 만주와 일본에서 추진되었다.

2.1. 해외에서 시작된 성서 번역(1976-1885년)

본격적인 한글 성서 번역은 1876년 만주에서 시작되었다.³⁾ 스코틀

3) 만주에서 이루어진 성서 번역과 출판은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 3 (1967); 김정현, 『나약한(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이만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과 한국인,”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구리: 두레시대, 1998); 이덕주, “초기 한글

랜드 연합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영구에 거점을 두고 만주 지역 선교를 추진하고 있던 로스(J. Ross)는 1874년에 처음 한중 국경 마을 고려문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한국인 상인들을 만난 후 한국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76년 두 번째 고려문에 가서 의주 출신 이응찬(李應贊)을 ‘어학 교사’로 채용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어서 로스는 187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작업에 매제이자 동료 선교사인 매킨타이어(J. McIntyre)와 이응찬을 비롯하여 김진기·최성균·이성하·이익세·백홍준·서상륜·김청송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로스는 1879년 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 원고를 갖고 안식년 휴가를 얻어 귀국하여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에 한글 성서 발간 지원을 부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80년 만주로 귀환한 로스는 선교 거점(mission station)을 심양으로 옮긴 후, 동관교회 구내에 한글 인쇄 시설을 갖춘 문광서원을 창설하고 1881년 한글 전도 문서인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을 인쇄하였고, 이듬해 3월에 최초 한글 성서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5월에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를 각각 인쇄하였다. 이후 1887년 신약 전체를 번역하여 『예수성교전서』를 출판하기까지 출판된 성서들은 다음과 같다.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1883년,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전서』,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 데자행적』.

1884년, 『예수성교성서 맛디복음』,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

1885년,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이비쇼셔신』, 『예수성교성서 맛디복음』.

1887년, 『예수성교전서』.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 성서와 거래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로스 역의 번역 출판과 반포(1877~1887),”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등 참조.

이로써 로스 번역 팀은 성경 번역에 착수한 지 10년 만에 신약 전체를 번역,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의 복음 수용이 이루어졌으니 1879년 번역에 참석했던 이응찬과 백홍준(白鴻俊)을 비롯하여 4명이 영구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인 최초 개신교 세례 교인이 되었으며 백홍준과 서상륜, 최성균 등 매서인을 통해 의주와 소래, 서간도 압록강 주변 한인촌에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이러한 선교 결과를 서구 교회에 전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이루어졌다.⁴⁾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 도쿄에 도착한 이수정(李樹廷)은 일본 기독교인 농학자 츠다센(津田仙)을 만나 그에게 받은 한문 성서를 읽던 중 개종을 결심하고 1883년 4월 도쿄 로게즈요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후 이수정은 미국 성서공회 일본지부 루미스(H. Loomis)의 지원을 받아 성서 번역에 착수하여 1884년 4월 한문 성서에 구결(口訣, 吐)을 단 형태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요코하마에서 인쇄하였고 이듬해 2월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복음서언히』를 출판했다. 이수정이 일본에서 간행한 성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883년, 『新約聖書 馬太傳』, 『新約聖書 馬可傳』, 『新約聖書 路可傳』, 『新約聖書 約翰傳』, 『新約聖書 使徒行傳』.

1885년, 『신약 마가전복음서언히』.

특히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은 한국 개척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1885년 4월 5일 인천에

4) 일본에서 이루어진 이수정의 성서 번역과 출판은 오윤태, 『한국 기독교사 IV-선구자 이수정 편』 (서울: 혜선문화사, 1983); 이광린, “이수정의 이물과 그 활동,” 『한국개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1969); 이만열, “이수정의 개정과 활동,”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이수정 역의 번역 출판과 반포(1883~1886),” 『대한성서공회사』 I 등 참조.

상륙할 때 짐 속에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수정은 성서를 번역하는 일 외에 미 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 S. Maclay)의 부탁을 받고 『미이미교회강례』, 『랑즈회개』 등 교리와 전도 문서를 번역하였고 도쿄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도하여 주일학교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또한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에서 발행되는 선교 잡지에 보내 미국 교회에서 ‘한국의 마케도니아인’(A Macedonian of Korea)이란 별명을 받기도 했다.⁵⁾ 이수정이 1886년 귀국한 후 그 행적을 알 수 없게 되어 그의 사역이 계속되지 못한 점에서 아쉽지만 일본에서 개종한 후 3년간 보여준 성서 번역과 전도 활동, 선교사 초기 활동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사역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개척자 칭호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다.

이처럼 아직 개척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성서가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고 그렇게 인쇄된 한글 성서가 여러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어 읽혀 개종을 결심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온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내한하였다. 선교사보다 먼저 성서가 들어온 것이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튼(W. B. Scranton) 등 개척 선교사들은 서울에 들어와 서상륜과 백홍준, 최성균 등 만주에서 복음을 접하고 개종한 후 성서 번역과 매서인 활동에 참여했던 토착 전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 선교에 착수하였으며 ‘찾아오는’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런 배경에서 언더우드의 “아직 씨를 널리 뿌려야 하는 시기였음에도 우리는 동시에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⁶⁾는 증언이 나왔다.

5) Rijutei, “Rijutei to the Christians of America, Greeting,”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Harrisburg: Missionary Review Pub. Co., 1884); G. W. Knox, “Affairs in Korea,” *Foreign Missionary* (New York: Mission House, 1883), 17.

6) 원문은 이렇다. H. G. Underwood, “While this was a period of wide seed-sowing, at the same time we were permitted to gather in our first-fruits,”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136.

이처럼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 인쇄된 한글 성서는 비록 사투리나 외국어식 표현과 표기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번역과 용어 선택 미숙과 한계가 발견되지만 오랫동안 ‘쇄국의 빗장’을 걸고 있던 한국에 복음 선교의 문을 연 열쇠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는 실로 크다 하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인쇄된 한글 성서가 개척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착수한 성서 번역 작업의 저본(底本)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2.2. 상임성서위원회 중심의 신약 번역(1885-1892년)

1885년 부활 주일에 내한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도착 즉시 어학 공부에 착수하는 한편, 토착인 어학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내한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이수정 역 마가복음의 교정 작업에 착수했다. 어학 공부와 선교 개척 사역과 병행하는 작업이었기에 진척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2년 후에 기본 원고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번역 막바지에 이른 1887년 2월 8일자 아펜젤러의 일기다.

요즈음 마가복음 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 년 전 일본에서 미국성서공회가 인쇄한 것이다. 그것이 시험본(tentative)이어서 교정 작업은 꼭 필요하다. 나 자신도 그랬지만 언더우드도 이 성서에 몇 군데를 빼놓고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훌륭한 번역인 것을 깨닫고 놀랐다. 철자법은 물론 엉망이지만.⁷⁾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펜젤러가 이런 일기를 쓰기 하루 전인 2월 7일에 당시 서울에 있던 선교사 5명, 즉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외에 알렌(H. N. Allen), 스크랜튼, 헤론(J. W. Heron) 등이 처음으로 성서위원회(Bible Committee fo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Korean)를

7) H. G. Appenaeller, *Appenzeller's Diary* (1887. 2. 8.)

조직하였다는 점이다. 언더우드를 위원장, 아펜젤러를 서기로 선출한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성서 번역(교정) 작업을 서둘러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인들에게 자기나라 말로 된 성서를 전달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887년 여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공역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마가의 전훈 복음서언해』를 인쇄할 수 있었다. 그 본문을 이수정 역본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신약 마가전복음서언해 1:1-5	마가의전훈복음서언해 1:1-5
神(신)의子(즈)耶穌基督(예슈쓰크리슈도스)의福音(복음)이니그처음이라 預言者(예언즈)의記錄(기록) 혼바의일너스되보라너니의使者(사즈)를내압히보내여씨네道(도)를갓추게히리라 혼말과긋치 드를에스람의소리잇셔웨쳐이르되主(주)의道(도)를갓추어그길을긋게 혼다 혼더니 約翰(요한네쓰)가드을이셔洗禮(밧테슈마)를베푸러뉘웃쳐긋치는洗禮(밧테슈마)를전하야 혼여금罪(죄)의赦(사) 혼을엇게 혼니 원猶大(유디아)왕과다못耶路撒冷(예루살렘)스람이다와셔約但河(알덴하)의셔約翰(요한네쓰)의게洗禮(밧테슈마)를밧고각각죄罪(죄)를自腹(즈복) 혼더라	상데의아들예수그리스도복음이니그처음이라 선지자의기록 혼바에닐너스되보라내가나의수자를내압히보내여씨네도를긋초게히리라 혼말과긋치 들에사름의소리잇셔웨쳐닐으대주의도를긋초아그길을긋게 혼다 혼더니 요한이들에서세례를베푸러뉘웃쳐긋는세례를전하야 혼여금죄사함을엇게 혼니 온유대이사와다못예루사렘사람이다와셔요르단하수에셔요한의게세례를밧고각각죄를자복 혼더라

국내 번역본으로는 최초 한글 성서로 기록되는 교정본 마가복음의 큰 변화는 어휘 변경에서 나타났으니 ‘神(신)’→‘상제’, ‘耶穌基督(예슈쓰크리슈도스)’→‘예수그리스도’, ‘預言者’→‘선지자’, ‘約翰(요한네쓰)’→‘요한’, ‘約但河(알덴하)’→‘요르단하수’ 등 일본어 성서에 등장하는 용어 교정이 이루어졌다.

마가복음 인쇄로 자신감을 얻은 선교사들은 그 해 11월, 일본 개척 선교사이자 일본어 성서 번역에 경험이 많은 헵번(J. C. Hepburn)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서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상임성서위원회(Permanent Bible Committee), 번역 위원회(Translating Committee), 개정

위원회(General Revising Committee)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⁸⁾ 비록 선교사 수가 많지 않아 3개 분야에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에 전개될 성서 번역과 출판, 배포 과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역할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마가복음 교정본을 낸 선교사들은 같은 방식으로 로스 역본 교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우선 번역을 주도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마가복음 교정본을 낸 직후 정동에서 각각 교회(새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하였으며 지방 순회 전도 여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에 번역에 전념할 수 없었다. 게다가 1888년 여름, 소위 '영아 소동'이 일어나 복음 전도와 의료, 교육 등 선교 사역 일체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선교사들이 번역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미 감리회 선교부는 1889년 배재학당 구내에 한문과 영문, 한글 인쇄가 가능한 미이미교회 인쇄소(Trilingual Press)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한글 성서의 국내 인쇄가 가능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1890년 언더우드가 교정한 『누가복음전』과 스크랜튼이 교정한 『보라달로마인서』를 미이미교회 인쇄소에서 인쇄할 수 있었다.⁹⁾ 1890년 『누가복음전』 본문을 1882년 인쇄된 로스 역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기에서 ‘던흐닌자’→‘전흐느자’, ‘준비갓티’→‘준긋치’, ‘척레토썸’→‘츠크레토썸’와 같이 평안도 사투리를 서울, 중부말로 교정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런 식으로 로스 역 요한복음을 교정한 『요한복음전』이 1891년

8) W. D. Reynolds,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The Korea Mission Field* 2:8 (1906), 172.

9)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Seoul: The Bible House, 1909), 15.

<표 2>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1:1-4	누가복음전 1:1-4
딤키열어사람이부술들어우리가운데일운일 을괴술흐되처음로부터친이보고도를면흐 년자우리를준비갓티흐옛기로노쫘긋여모 둔일을자세이근원을쫘차치레토써귀인데오 비노의존전에달흐문귀인불노보인비의실 정을알게흐미라	대개여러사람이붓술들어우리가온딤키일운바 일을쓰기는 처음으로부터친이보고도를면흐 는자가우리들중우치 내가또흐처음로모든 일을주세히상고흐야차례로써긋고귀흔티 오비노의합하의즐거양달흐은 영의릭훈바의 곳게흠을알게흠이라

미이미교회 인쇄소에서 간행되었다. 이것은 만주에서 매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은 후 형 서상륜과 함께 의주와 소래에서 전도 활동을 펼친 서경조가 1889년 내한한 독립 선교사 펜윅(M. C. Fenwick)과 함께 원고를 만든 것인데, 이전 성서와 달리 한문 성서 본문을 병행문(並行文)으로 편집한 것이 특이하다.¹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서는 위원회 번역본이라기보다 펜윅 선교사가 서경조와 함께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 마련한 원고¹¹⁾ 미국성서공회에서 받아들여 인쇄한 것이다. 그 본문

10) 선택한 한문 성서는 대표자 문리역본(文理譯本)인데 본문은 다음과 같다. “元始有道 道與上帝共在 道卽上帝 是道 元始與上帝共在也 萬物以道而造 凡受者無不以之而造 生在道中 生也者 人之光 光照於暗 暗者不識之.”

11) H. Loomis, *H. Loomis' letter to Dr. Gilman* (Feb. 20, 1891); M. C. Fenwick, *The Church of Christ in Corea* (New York: Fleming H. Doran Company, 1911), 2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228-229. 한편 서경조가 처음에는 아펜젤러와 함께 요한복음 교정 작업을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마가의전한복음서언히』 간행을 끝낸 직후 아펜젤러의 1887년 8월 12일자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7일 요한복음 번역을 위해 한 사람 경비를 지불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 보내 기독교에 대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였다. 그는 매서인 사역도 할 것이다. 이 서(Sy)씨는 6년 전 심양에서 매킨타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H. G. Appenzeller, *Appenzeller's Diary* (1887. 8. 12.)]. 이 일기에 나오는 ‘서씨’가 서경조로 추정되며 이런 식으로 서경조는 아펜젤러의 지원으로 성경 번역(교정) 작업을 시작했다가 소래에 내려 온 펜윅과 짝이 되어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경조의 회고록에 의하면 처음엔 함께 번역했지만 “서투른 조선 말대로 고집하는” 펜윅과 의견 충돌이 빚어져 번역 작업에서 손을 떼었다 한다(서경조, “徐景祚의 信道와 傳道와 松川教會 設立歷史,” 『신학지남』 28 (1925), 93).

을 1882년 간행된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와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 1:1-6	요한복음전 1:1-6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 하느님과함께하시니도는 곳 하느님이라이도가처음에 하느님과함께하시 만물이말무야다지여스니지은복는하나토말무디 안코지오미업년이라도에칭명이이스니이칭명이 사람에빛치되어야빛치우되어두운데는아디못하더 라	처음에도가잇스되도가하느님과함께하시니 도는곳하느님이라 이도가처음에하느님과 함께하시매 만물이말미암아다지잇스니지은 바는하나토말림지안코지음이업스니라 도 에칭명이잇스니이칭명이사람의빛치되어 빛치어두온되빛최오되어두온되논아지못 하느니라

‘말마야디’→‘말미암아’, ‘말무디안코’→‘말림지안코’와 같이 평안도 사투리를 교정한 것, 신의 명칭을 ‘하느님’→‘하느님’으로 바꾼 것 외에 로스 역본에 나오는 ‘대두법’(擡頭法) 표기가 교정본에서는 생략되고 대신 절 사이에 한 칸씩 띄운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은 로스 역본의 흐름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이처럼 로스 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교정하는 식으로 진행되던 번역 작업은 『요한복음전』을 끝으로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번역(교정) 작업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이 2년 만에 “철자법을 수정하는 데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말았기” 때문이다.¹³⁾ 그리하여 1890년 6월 열린 성서위원회에서는 더는 로스 역본을 저본으로 한 교정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로스 번역이 안고 있는 오류와 문제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국어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된 선교사들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언더우드와 스크랜튼은 마태복음부터 번역을 시

12) 펜윅은 『요한복음전』을 교정, 보완하여 1893년 『약한의기록한디로복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위원회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출판이었다.

13) W. D. Reynolds,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116.

작했고 이들이 안식년 휴가를 간 후 아펜젤러가 맡아서 번역을 마치고 1892년 1월 『마태복음전』이란 제목으로 인쇄하였다.¹⁴⁾ 그 본문을 『로스 역』(1885년)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예수성경성서 맞딴복음 5:1-7	마태복음전 5:1-7
예수그사름을보고산에올나안즈니데자나아 오거날예수입을열어가라쳐갈오샤되마암궁 빈한자복이문툰국이더의나라이되고슬퍼하 는자복이문그안위가있고은 한자복이문 세상을엇고의를괴갈하노자복이문뵈부르고 가련히네기난자복이문가련히네기물밧고	못사름을보시고산에올나가안지시니데즈들이 그압희나오매 입을여러마르쳐골오샤되 밋음으로가난흔이노하늘나라가더희나라히니 복이며 설위흔이노장춧위로흠을밧을거시니복이며 공 혼이노장춧싸흠을거시니복이며 의에괴갈들닌이노장춧부름을엇을거시니복이 며 불상이넉이노이노장춧불상이넉임을엇을거시 니복이며

‘데즈’, ‘더희’, ‘넉이노’ 같이 평안도식 표기가 남아 있지만 ‘툰국’→ ‘하늘나라’, ‘네기난’→‘넉이노’ 식으로 교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문맥과 표기에서 로스 역 본문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장 띄어쓰기는 여전히 되지 않고 있지만 절마다 행을 바꾸어 새로 시작한 것이 눈에 띈다.

『마태복음전』으로 본격적인 ‘국내 번역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마태복음전』을 다량 인쇄하지 않고 30부만 인쇄하여 개정위원회에 넘겨 개정위원회는 이를 받아 “이름이나 토씨를 개정한 후 이것을 번역 모범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¹⁵⁾ 개인 번역(translation)→위원회 개정(revision)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의 기본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이렇게 위원회 검토를 마친 원고를 인쇄에 넘겨 1893년 5천 부를 인쇄

14)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16.

15) H. G. Appenzeller and George Heber Jones, “The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The Korean Repository* (Seoul: Trilingual Press, 1895), 196.

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최초 '위원회 역본'(committee version)이 된 『마태복음전』은 1900년 간행된 『신약전서』에 편입되기 까지 판을 거듭하여 인쇄되었다.¹⁶⁾ 같은 위원회 번역본으로 1892년 『스도힝전』이 서울 미이미교회 인쇄소에서 간행되었는데 이것은 1891년부터 성서 번역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게일(J. S. Gale)이 이창직(李昌植) 등과 함께 번역한 것이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성서 번역의 결과물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7년, 『마가의전훈복음서언히』.

1890년, 『보라달 로마인서』.

1891년, 『요한복음전』.

1892년, 『마태복음전』, 『스도힝전』.

이런 성서 번역과 교정 과정을 거치면서 선교사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선교지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초기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미숙과 실수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번역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번역 원칙과 방법론을 수립하게 되었다. 1893년이 그 분기점이었다.

2.3. 성서위원회 개편과 신약 번역(1893-1900년)

1893년 5월, 중국과 만주에서 사역하던 영국성서공회 켄뮤어(A. Kenmure) 총무와 터리(R. T. Turley) 부총무가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내한 선교사들과 스코틀랜드, 미국 성서공회 관계자들과 회합을 갖고 한국에서의 성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16)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Seoul: The Bible House, 189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232.

17) Ibid., 233-234.

을 나누었다. 이 만남을 통해 영국과 미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한국 성서 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영국 성공회는 한국 지부 설치 전 단계로 성서 판매소(depot)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한 후, 그 해 연말에 서울 종로 한복판 향정동에 기와집을 구입하여 중국인 전도자 두 명을 파송하였다. 그리고 영국성서공회는 1895년 한국 지부를 설치하고 켄뮤어가 지부 총무로 취임하면서 이후 전개된 한국 성서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다.¹⁸⁾

또한 1893년 켄뮤어의 방한은 그때까지 추진해 왔던 성서 번역과 출판, 보급에 관한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과 체제로 재편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방한하기 전 심양에서 로스를 만났던 켄뮤어의 증재로 국내 선교사들은 로스 역 출판이나 교정 작업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켄뮤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번역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서위원회 조직을 개편하였다.¹⁹⁾ 그 결과 기존의 상임성서위원회를 ‘상임성서실행위원회’(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 선교를 추진하고 있는 선교회 대표들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서 번역과 출판, 반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한 번역자들로 성서 번역자회(Board of Translators)를 조직하여 번역 실무를 전담하되 번역자회가 마련한 번역 원고를 실행위원회에서 검토, 교정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성서 번역 과정을 단순화시키면서도 번역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여 효율적인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런 조직과 원칙하에 1893년 10월 새롭게 성서 번역자회가 조직되었으니 전부터 번역자로 활동하던 미국 북 장로회의 언더우드와 게일, 미 감리회의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이 공식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영국성공회의 트롤로프(M. N. Trollope)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²⁰⁾ 성

18) H. Miller, “The Genesis of Agencies and Missions in Korea: The British Bible Societies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0-11.

19) W. D. Reynolds,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173.

20) 트롤로프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성서 번역자회에 참여한 것은 개인 의사보다

서 번역자회는 언더우드를 회장, 스크랜튼을 서기로 선출하였으며 1895년부터 미국 남 장로회의 레이놀즈(W. D. Reynolds)가 번역 위원으로 추가로 참여하면서 번역 위원 5인 체제를 취하였다.²¹⁾ 성서 번역자회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인 조수를 두어 번역 작업에 도움을 받았는데, 한국인 조수들은 번역자회에 참석하여 결의권은 없지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이로써 단순한 어학 교사가 아니라 성서 번역의 조연자로서 한국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²²⁾ 이렇게 번역 진용을 재구성한 성서 번역자회는 다음과 같은 번역 원칙과 방법을 정하였다.²³⁾

- 1) 각 번역자들에게 번역할 성서를 배분한다.
- 2) 선교사들은 헬라이어 성서와 개정판 영서 성경(Revised Version), 한국인 조수들은 중국의 대표자 본(Delegates Version)을 저본으로 하되 일본어 성서도 참조하여 번역한다.
- 3) 완성된 번역 본문을 다른 번역자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6칸 공간을 만든 특수 용지에 기록하여 번역자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 4) 서기는 번역문을 다른 번역자들에게 회람시켜 번역 본문에 대한 자기 의견과 비판을 기록하도록 한다.
- 5) 서기가 회람 원고를 원래 번역자에게 보내면 그는 다른 번역자

‘공교회’ 전통과 질서를 강조하는 성공회 체질에서 혹시 성서 번역자회의 결정이 성공회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경우 번역자회에 참여한 성공회 선교사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한 코프(C. J. Corfe) 주교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트롤로프의 성서 번역 참여는 그가 1899년 강화로 임지를 옮기기까지 6년간 지속되었다. C. J. Corfe, “The Bishop’s Letter,” *The Morning Calm* (Sep. 1893.), 125-126;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437.

- 21)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17; “성경번역,”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900. 5. 9.
- 22) 초기 성서 번역에 참여한 한국인 조수들로는 송덕조·조성규(조한규)·이창직·정동명·김명준·김정삼 등으로 파악된다.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442.
- 23)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n,” *The Korean Repository* 3 (1986), 471-473; W. D. Reynolds,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179.

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본 원고를 만든다.

6) 서기는 수정본 원고를 5부 만들어 다시 다른 번역자들에게 돌려 본문에 대한 각자 의견을 최종 정리하도록 한다.

7) 전체 번역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서기 혹은 번역자가 수정본 원고를 한 절씩 읽어가며 토론과 표결을 거쳐 번역 본문을 확정한다.

선교사 번역자가 한국인 조수의 도움을 받아 만든 ‘개인 역’ 원고 (Individual Draft)에 다른 번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역본’(Provisional Version)을 만든 후 성서 번역자 전체 회의에 올려 토론과 표결을 거치면 ‘번역자회 역본’(Joint Version/Boards Version)이 되고 그것을 번역자회에 전달받은 성서실행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인쇄에 붙임으로 ‘시험 역본’(Tentative Version)이 나오게 된다. 이 시험 역본을 3년 동안 출판하면서 발견된 오류와 독자 반응을 참조하여 본문을 최종 교정한 것을 ‘공인 역본’(Authorized Version)이라 하고 “실행위원회로부터 개역(revision)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속 발행하였다.²⁴⁾ 이로써 개인 역본→수정 역본→번역자회 역본→시험 역본→공인 역본에 이르는 번역과 인쇄의 기본 과정을 확립하였다.

이런 원칙하에 성서 번역자회는 신약 성서 복음서부터 번역에 착수 하였는데 모든 성서를 ‘시험 역본’ 수준에서 인쇄하기를 원했으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한글 성서를 하루바삐 보급해 달라는 선교 현장의 시급한 요청에 따라 번역자회는 “마지못해 규정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개개인 번역자들의 개인 역이며 아직 번역자회에게 인쇄 허락조차 받지 못한 원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원고를 실행 위원회에 넘겼다.

그런 식으로 1895년에 아펜젤러가 번역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게일이 번역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1896년에 언더우드

24)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17;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n,” 473.

번역한 『누가복음』을 각 1천 5백 부씩 인쇄했는데 “출판되자마자 모두 매진되는”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다.²⁵⁾

한국 교회의 갈급한 ‘성서 욕구’를 확인한 선교사들과 성서 실행위원회는 개인 역본이나 수정 역본 상태라도 번역이 되는대로 인쇄에 넘겨 출판하는 한편, 시험 역본이나 번역자회 역본 작업에 치중하기보다 아직 손대지 못한 성서들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897년부터 번역자회를 봄, 가을에 매주 3회씩 모여 번역에 매진한 결과 그 해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베드로서를 번역, 인쇄하였고 1898년 로마서와 고린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디모테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요한서, 유다서, 1899년 에베소서, 그리고 1900년 계시록 번역을 마쳤다.²⁶⁾ 이렇게 인쇄된 성서는 전국 교회로 팔려나갔는데 그 열기를 1899년 2월, 「대한크리스도인회보」 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신약 이십칠권을 다 번역하여 지금 출판하는 중이오 상년에 백헌책 권 수요가 합 구만 삼천 권이오 또 각처 교회당에 나아간거시 사만 일천 이백 팔십 사권이오 방해한 거슨 삼만 사천 팔백 십삼권이오 제작년에 방해한 거시 육천 삼백 사십오 권이니 비교하여 보건대 작년에는 제작년 보담 오감절이나 더 되는지라.²⁷⁾

번역 막바지에 이른 1899년 가을부터 3개월 동안 모든 번역자들이 함께 모여 번역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번역 외에 앞서 개인 역본 형태로 인쇄되었던 성서 본문에 대한 번역자회, 실행위원회 검토 작업을 추진하여 1900년 봄에 이르러 4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25)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473-474.

26) 이렇게 번역된 원고를 곧바로 ‘쪽 복음’ 형태로 출판하였는데 1) 번역자들을 위한 교정과 수정하기 쉽게 줄 간격을 넓힌 것, 2) 일반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줄 간격을 좁힌 것, 3) 글을 잘 못 읽는 교인들을 위해 여백과 공간을 많이 두어 세 종류로 인쇄하였다.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18.

27)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9. 2. 22.

를 ‘시험 역본’ 수준까지 만들 수 있었다. 실행위원회는 여기에서 개인 역본 형태인 고린도서 이후 서신들과 마지막으로 번역을 끝낸 계시록을 합하여 합본 『신약전서』를 인쇄하기로 하여 큰(5호) 활자본 1만 2천 부, 작은(4호) 활자본 1만 5천 부, 그리고 4복음서와 사도행전 합본 1만 부를 서울 정동의 미이미교회 인쇄소와 일본 요코하마의 복음인쇄 합자회사에서 나누어 인쇄, 출판하였다.²⁸⁾ 그리하여 1900년 성서공회 주일(5월 6일)을 맞아 한국 교회는 국내에서 한글로 번역된 신약전서를 갖고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²⁹⁾ 그리고 그 해(1900년) 9월 9일 주일에 다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성서실행위원회 주관으로 신약전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성서 번역에 참여한 선교사와 한국인 조수들은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공사가 참석했고 미국성서공회 일본 지부 총무 루미스도 와서 축하하였다.³⁰⁾

이로써 만주에서 우리말로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25년, 일본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개척 선교사가 들어온 지 15년, 초반 혼선을 극복하고 성서위원회 번역자회를 재정비하고 번역 원칙을 세운 후 새롭게 번역을 추진한 지 7년 만에 신약 전체 번역을 완료하고 한국 교회는 단권 『신약전서』를 소유하게 되었다.

3. 『성경전서』(1911년) 번역과 출판

엄밀한 의미에서 1900년 인쇄되어 나온 『신약전서』는 번역 차원에서 보면 미완성본이었다. 1893년 제정한 성서 번역과 인쇄 원칙에 의하면 개인 역본→수정 역본→번역자회 역본→시험 역본→공인 역본의

28)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18.

29)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900. 5. 9.

30) 이날 예배는 성서실행위원회 회장 마펫(S. A. Moffett)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성서번역자회 회장 언더우드와 서기 스크랜튼 외에 루미스와 알렌(당시 미국 공사)이 연설을 하였다.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19.

과정을 거쳐야 공교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서라 할 수 있는데 1900년 『신약전서』는 3분의 2 정도만 시험 역본(Tentative Version)이고 나머지는 개인 역본이나 수정 역본 수준이었다. 그렇다보니 같은 책인데도 번역자에 따라 표기와 표현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다.³¹⁾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명칭과 표기 혼돈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개인 역본, 수정 역본 수준의 성서 본문을 시험 역본과 공인 역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시급했다.

이와 함께 성서의 다른 부분, 즉 구약 성서 번역도 시급하였다. 양도 양이거니와 언어에서도 구약의 히브리어에 정통한 번역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해외에서 번역을 시작했던 로스나 이수정은 물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튼 등 개척 선교사들도 신약 번역에 매달리느라 구약 번역은 손도 대지 못했다.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구약 일부를 번역한 시도는 있었다. 우선 유대계 러시아 출신으로 1895년부터 미국 성서공회 루미스 총무의 파송을 받아 서울에 와서 매서인 활동을 펴고 있던 피터스(A. A. Pieters)가 “시편 150편 중 저주 시편을 제외한 62편을” 번역, 1898년에 『시편촬요』란 이름으로 출판하여 ‘구약 성서 한글 번역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 외에 피터스가 모국어인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직접 번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²⁾ 그리고 같은 시기에 최병헌(崔炳憲)은 「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 1년 동안(1898. 6.-1899. 6.) 주일학교 교재용으로 창세기 전체의 50% 가량을 번역, 연재하였는데 비록 중국의 한문 성서를 대본으로 한 번역어라는

31) 예를 들어, 신명(神名)만 보더라도 시험 역본인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는 ‘하느님’으로 통일되었으나 개인 역본 수준인 다른 성서에서는 ‘하느님’, ‘상대’, ‘턴주’ 등이 혼재한 상태로 인쇄되었다. 초기 한글 성서 번역과 신 명칭 논쟁 및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옥성득, “개신교 전래기 신 명칭 용어 논쟁,” 「기독교사상」 418 (1993), 참조.

32) A. A. Pieters, “First Transla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34:5 (1938), 93; 김중은, “최초의 구약 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 「교회와 신학」 13 (1981), 37.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어휘와 표기에서 그의 번역문이 이후 전개된 구약 성서 번역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³⁾ 이 외에 선교 초기 주일학교와 사경회, 기독교 학교 교재용으로 구약 성서에서 부분별로 발췌하여 번역한 본문이 실린 『구약공부』(1893년)와 『구약촬요』(1899년) 등이 있어³⁴⁾ 한국 교인들이 구약 본문을 접할 수는 있었지만 구약 전체를 우리말로 온전하게 읽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1900년 『신약전서』 출간은 신약의 공인 역본화(公認譯本化)와 구약 성서 번역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성서 위원회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중심 사업으로 삼았다.

3.1. 공인 역본 신약 성서 출판(1900-1906년)

1900년 『신약전서』 간행을 양해한 성서 번역자회는 서둘러 이 성서에 포함된 개인 역본을 시험 역본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노련한 번역자 언더우드와 스크랜튼이 안식년 휴가와 개인적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 귀국하여 번역 진용에 결원이 생긴 것이 큰 원인이었다. 번역 작업에 큰 힘이 되었던 영국 성공회의 트롤로프도 선교부 지시로 1899년 이후 번역에서 손을 뗐다. 결국 남은 아펜젤러와 레이놀즈, 게일 등 3명이 개정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레이놀즈까지 1902년 3월 남 장로회 선교부 지시로 서울을 떠나 목포로 근무지를 옮겨³⁵⁾ 번역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33)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36 (1986), 108-118; 이환진, “탁사 최병헌 목사의 <대한크리스도인회보>(1898-1899) 창세기 2장 번역 분석,” 『탁사 최병헌 목사의 생애와 신학』 (서울: 정동삼문출판사, 2008), 348-384.

34) 도원시, 『구약공부』 (간행자 미상, 1893);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기독교사상』 385 (1991), 157-166.

35) 남 장로회 목포 선교부를 개척하고 활동하던 오웬(C. C. Owen) 선교사가 1902년 초 건강 때문에 귀국하자 남 장로회 선교부에서는 레이놀즈를 오웬 대신 목포 선교부 관리자로 파견하면서 지역 선교 사업과 성서 번역 사업을 겸하도록 조치했

레이놀즈가 목포로 내려간 후에도 서울로 올라와 아펜젤러, 게일과 함께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02년 3월에 이르러 “고린도 전서 6장까지 완성하였고 일을 효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봄과 여름 서울에서 모이던 개정위원회를 레이놀즈가 있는 목포에서 장마 전 한 달 동안 모이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두 선교사가 내려가기로” 하였다.³⁶⁾ 번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이 어려운 장마철을 기해 6월 한 달 동안 레이놀즈가 있는 목포에 모여 집중적인 번역(개정)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 따라 게일은 시간에 맞추어 목포에 도착했으나 아펜젤러는 사정 때문에 제때 배를 타지 못하고 6월 11일 조수 조한규와 함께 인천을 출발하여 목포로 가다가 어청도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하는 조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³⁷⁾

목포에 먼저 가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들었던 게일은 성서 번역자로서 아펜젤러의 희생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902년) 3월 한 달 동안 나와 아펜젤러, 레이놀즈가 만나서 3천 개에 달하는 성서 용어들을 확정하고 고린도전서부터 번역을 시작했는데, 레이놀즈가 부득이 목포로 가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 가능하면 그보다 일찍 목포에서 만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나는 5월

다. G. T. Brown, *Mission to Korean* (Richmond: Board of World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1962), 50, 74.

36)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19-20.

37) Wilbur C. Sweaver, “Wreck of the Kumagawa Maru,” *The Korea Review* (Jun. 1902.), 247-250; 기독교대한감리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Henry Gerhard Appenzeller,”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3)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84), 68-69. 아펜젤러는 1902년 5월 16-21일 평양에서 개최된 미 감리회 매년회에서 남방 지역 장로사로 임명되어 연회 직후 무어(Moore) 감독과 함께 시흥 무지내교회를 방문하러 가던 중, 경부선 철도 공사를 하던 일본인 노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 목격자로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는 일 때문에 목포로 출발하는 일정이 늦어졌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는 홍승표, “아펜젤러 조난사건의 진상과 의미,” 『한국 기독교와 역사』 31 (2009) 참조.

28일 아펜젤러를 만나 제물포 출발 일정을 상의하였는데 아펜젤러는 다음 배로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나도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출발할까 물어보았지만 우리가 6월 1일 목포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상기하고 그는 나중에 오기로 하고 나만 먼저 출발하였다. 그는 6월 5일 배도 못타고 6월 11일에야 배를 탔다. 그런데 그 날 밤 10시 그가 탄 배가 같은 회사 소식 배와 충돌하였고 그는 육지에서 12-15마일 떨어진 바닷물 속으로 잠겼다.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번역자회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비어 있고 그의 활기찬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성서 번역 사역에 바쳤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번역 작업은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³⁸⁾

아펜젤러가 한국 개신교 개척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와 교육, 문서 출판 등 선교 전반에 기여한 공로도 크지만 성서 번역과 반포 사역에서도 그가 남긴 공은 지대하였다. 그가 목숨을 잃게 된 계기가 성서 번역을 위해 항해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그와 그의 조수 조한규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 성서 번역 희생자로서 특별한 위치와 의미를 지닌다. 1902년 8월 「신학월보」는 성서 번역에 관한 아펜젤러의 공로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쎄노쓰라흐는목스가 청국에잇서서성경을 대한국문으로번역하였는디 대단히완전한번역이못된고로 성경을정칙히번역호라고 성경회료도직하니 본장로스가그회에번역 위원이되여 번역호는일에대단히힘썼으며 성경뿐아니라 다관요긴호학문칙들도만히번역호야 우리들을 무르쳤쓰미 오날날우리가가지고회당으로단니는성경인즉 이장로스에힘이얼마큼드러시니 우리는성경을닐을쎄미다 이장로스의공효를싱각하고 즈연히나누가되니 경향각쳐에성경보시는형테즈미들은 아마도우리와갓치이장로스를사모호리로다.³⁹⁾

38) J. S. Gale, "Bible Transl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3:1 (1917), 53.

그리고 아펜젤러가 성서 반포와 관련하여 ‘대한성서공회’를 설립하고 성서공회주일을 실시한 일도 이렇게 치하하였다.

우리대한에는 서칙회라 하는 것이 업섯더니 이대한성서공회를 이장로스 가설시호시고 주기가회장이되여 스무를 열심으로 보앗스미 성서공회일이 날노 흥왕호여가며 일년일차식기회호고 각회당에서 연보호여 성경박혀내는 일에 보조호니 이스업이대단이 큰지라 우리가이회에니익을 다작기보는 것이 이회에서 성경을 박혀 팔되 리는 남기지 아니호고 본가로파니 빈한한 사람의게 얼마큼 다칭이로다.⁴⁰⁾

아펜젤러의 순직으로 성서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이다. 특히 노련한 번역자를 잃은 성서 번역자회의 타격이 컸다. 다행히 언더우드와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귀환하였고 미 감리회 선교부에서 아펜젤러 후임으로 존스(G. H. Jones)를 성서 번역자 서기로 추천하여 번역자회 진용이 예전 규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존스가 6개월 만에 안식년 휴가를 받아 귀국하면서 성서 번역자회는 언더우드와 게일, 레이놀즈 등 장로교 선교사들로만 구성되었다.⁴¹⁾ 효율적인 신약 성서 개정과 구약 성서 번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1904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 스코틀랜드 등 3개 성서공회가 ‘연합 정신’을 바탕으로 번역과 출판 사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합 지부’(Joint Agency)를 조직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상임성서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1901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연합 지부’ 설치 논의는 각국 성서공회 내부 입장 차이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1903년 9월에야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1904년 1월 1일부터 연합지부를 설치하고 공동 총무에 켄뮤어, 협동 총무에 밀러(H. Miller)가 취임하여 이때부터

39) “남방장로스 아펜셀라씨 별세함,” 『신학월보』 1902. 8., 355-356.

40) Ibid., 359.

41)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20.

‘단일 노선’으로 한국에서의 성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⁴²⁾ 이에 따라 성서 번역과 간행 체제도 재정비하여 상임성서실행위원회를 해체하고 3개국 성서공회,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한국 성서위원회’(The Bible Committee of Korea)를 조직하였으며 그 산하에 성서 번역자회를 두었다.⁴³⁾

이처럼 조직과 체재를 정비하고 재정적인 후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서 번역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영국성서공회에서 “번역자 1인 경비를 전담하기로” 하자 레이놀즈가 그 일을 자원하여 그는 남 장로회의 승인을 받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번역 일에 전념하였으며 북 장로회 선교부도 언더우드와 게일이 번역에 전념하도록 양해하였다.⁴⁴⁾ 그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신약 성서 교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1904년 ‘시험 역본’을 완성하여 『신약전서』를 인쇄하였고 2년 검토를 거쳐 1906년에 ‘공인 역본’ 『신약전서』를 출판하였다.⁴⁵⁾ 한글 성서로서는 최초 ‘공인 역본’이 나온 것이다. 이 신약 성서는 1936년 개역 성경이 나오기까지 30년 동안 ‘공적인’ 성서로 권위를 인정받으며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읽혔다.

3.2. 구약 성서 번역(1906-1910년)

신약 성서 번역을 완료한 성서 번역자회는 곧바로 구약 성서 번역에 착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성서 번역은 1890년대 이미

4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286-303.

43) 성서위원회에 참여한 선교부는 미국 북 장로회와 남 장로회, 호주 장로회와 캐나다 장로회, 미 감리회와 남 감리회 등이었고 성서 번역과 출판 비용은 3개국 성서공회가 다 분담하기로 하여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가 각 5분의 2,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5분의 1을 감당하기로 하였다.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24.

44)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23-24.

45)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06), 13-14;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24.

피터스와 최병헌이 개인적 차원에서 시도한 바 있지만 성서위원회나 번역자회 차원에서 시작한 것은 개인 역본과 시험 역본 혼용의 『신약 전서』를 출판한 1900년 직후였다. 번역 위원들은 신약 성서 개정 작업과 구약 성서 번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구약을 분담하여 아펜젤러가 창세기, 언더우드가 시편, 게일이 잠언과 사무엘, 스크랜튼이 이사야, 레이놀즈가 여호수아를 맡아 번역을 시작하였다.⁴⁶⁾ 그 중에 아펜젤러 순직과 스크랜튼의 선교사직 사임(1907년)으로 맡은 성서 번역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편을 맡은 언더우드는 1901년까지 시편 31편까지 번역을 마쳐 원고를 게일과 스크랜튼에게 넘겨 교정하였으며 게일은 1902년 잠언 번역을 마치고 열왕기 번역에 착수하였다.⁴⁷⁾

그리하여 1905년에 이르러 창세기와 시편 번역이 완료되어 번역 위원들의 교열에 들어갔으며 1906년 9월, 『창세기』와 『시편』으로 인쇄되었으니⁴⁸⁾ 한글로 완전하게 번역된 최초 구약 성서가 비로소 한국 교회에 제공된 것이다. 두 성서의 본문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창세기 1:1-5	시편 1:1-3
태초에 하나님이 텅디를 창조하시다 사이 혼돈 햏야 공허햏고 깃흙 우에 캄캄햏이 잇는디 하 능님의 신이 물 우에 운동햏시더라 하능님이 쿨으샤디 빗치 잇스라 햏시니 곳 빗치 잇거늘 하능님이 빗출 보시매 도흔지라 하능님이 빗과 어두움을 분변햏시고 하능님이 빗출 낫이라 햏 시며 어두움을 밤이라 햏신디 저녁이 되며 야 츨이 되니 첫재 날이러라	복 잇는자는 악햏자의 의론대로 헝치아 니햏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햏며 오 만햏자의 자리에 안지도 아니햏고 오직 여호와의 룰법을 즐거워햏니 그 룰 법을 쥬야로 상햏는도다 이 사람은 비컨대 사뉜 물 가에 심은 나 무가 그 시절을 좇차 열미를 톡즈며 그 납사귀가 무르지아니햏 곳흐니 므트 그 의 헝햏는 일이 다 형통햏리로다

46) W. D. Reynolds,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117;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443.

47) J. S. Gale, "Bible Translation," 53.

48)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06), 14;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eds.,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06), 300.

현대 어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표기와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시편은 절마다 행간을 달리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시적(詩的)인 느낌을 주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이처럼 1906년 신약 성서 공인 역본과 구약 『창세기』, 『시편』 출판을 계기로 번역 작업에 탄력이 붙었고 번역 진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1906년 안식년 휴가를 떠난 게일과 언더우드 대신 남 감리회 선교사 크램(W. G. Cram)과 『시편 활요』를 펴낸 적 있는 피터스가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 참여하였다.⁴⁹⁾ 또한 성서 번역자회는 정식 번역 위원이 아니라도 선교사 개인이 번역한 원고를 적극 수용,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그런 식으로 1906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홀(E. F. Hall)이 번역한 말라기, 베어드(W. M. Baird)가 번역한 다니엘서 원고를 받아들여 검토했다.⁵⁰⁾ 그리고 1907년 번역자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니 그동안 선교사의 조수로 번역에 참여해왔던 이창직(李昌植)과 김정삼(金鼎三)이 성서위원회 “투표를 거쳐 정식 번역 위원으로” 선정된 것이다.⁵¹⁾ 이것은 한글 성서 번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선교사의 어학 선생이나 조수로 번역에 참여해 그 기능이 ‘조역’에 머물렀던 것이 1907년 김정삼과 이창직부터 선교사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바뀌었다. 성서 번역에서 한국인의 ‘동등’ 참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약 성서 번역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1907년에 『잠언』, 『삼우엘전』, 『삼우엘후』, 1908년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출애굽기』, 『이사야』를 각각 1만-2만 5천 부씩 인쇄했는데⁵²⁾ 그

49)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The Korea Mission Field* 2:6 (1906), 101;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39.

50)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07), 10.

51)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24.

52)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eds.,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08), 330;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09), 354;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24.

반응 또한 대단하였다.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대한 한국 교회의 욕구는 선교사들의 기대 이상이었다. 그런데 번역자 상황은 이런 요구에 부응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언더우드와 게일이 휴가를 마치고 귀환했지만 목회와 선교부 사정으로 번역에 전념할 수 없었고 스크랜튼과 존스, 크랩 이후 감리교 쪽에서 번역자 보강도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번역 작업은 레이놀즈와 김정삼, 이창직 등 3인의 몫이 되었다. 여기에 1908년 3월 레이놀즈가 남 장로회 선교부 결정으로 전주 선교부 관리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그와 함께 두 명의 한국인 번역자도 전주로 옮겨 번역 작업을 지속하였다.⁵³⁾

이후 레이놀즈가 한국인 번역자들과 함께 전주에서 번역한 원고를 서울의 게일과 언더우드에게 보내 교정을 하는 형태로 번역이 진행되었다. 서울에서는 전주에서 원고가 올라오기만 기다렸다. 영국 성서공회 총무의 1910년 보고이다.

한국 성서 번역자회는 현재 언더우드(회장)와 레이놀즈, 게일, 그리고 두 명의 한국인 이창직과 김정삼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9년 성탄절까지 구약 번역이 끝나기를 기대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지난 보고서를 낸 이후 에스더, 욥, 아가, 다니엘, 호세아를 번역 위원회에서 받았다. 16권 남았는데 모두 짧은 것들이다. 원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⁵⁴⁾

그리고 마침내 레이놀즈는 1910년 4월 2일 번역을 끝내고 서울의

53) 1908년 1월 전주에서 활동하던 전킨(W. M. Junkin) 선교사가 갑자기 별세하여 생긴 전주 선교부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었다. 남 장로회 선교부에서는 레이놀즈를 전주로 파송하면서 그동안 영국성서공회가 부담하던 레이놀즈 생활비를 전담하기로 하는 한편 그의 성서 번역 작업을 도울 한국인 번역자 두 명 가족의 전주 이주와 생활비까지 부담하기로 하였다. G. T. Brown, *Mission to Korea*, 75; H. O. T. Barkwall, "Historical Sketch," 39.

54)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eds.,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10), 348.

연합성서공회 밀러 총무에게 ‘번역 완료’를 알리는 전보를 보낼 수 있었다.⁵⁵⁾ 그리하여 한국성서위원회와 영국성서공회는 1911년 연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할 수 있었다.

성서 전체 번역이 끝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한다. 한국 땅에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가 발을 내디딘 지 27년, 성서 번역 자회가 조직된 지 2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처음 조직된 번역자회에 참석했던 이들 중에 현존하는 선교사는 두 명인데 그 중에 언더우드만 지금도 번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더우드 박사는 처음부터 번역자회 회장이었고 안식년 휴가로 떠나 일을 쉴 때를 제외하고 언제나 번역 일을 하였다. 언더우드 박사에게, 게일 박사에게, 특히 번역자회 서기로서 구약 번역의 무거운 짐을 거의 혼자 지다시피 했던 레이놀즈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번역자회에 참여한 한국인 형제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성서공회와 한국 교회는 이 분들에게 큰 빛을 졌다.⁵⁶⁾

이렇게 해서 완성된 구약 성서 원고는 번역자회 교정과 성서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1910년 말 인쇄에 붙여졌다. 발행은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가 나누어 맡았고 인쇄는 일본 요코하마의 복음인쇄합자
회사에서 맡았다. 그리하여 1911년 3월에 2책 1질, 혹은 3책 1질 형태의
『구약전서』와 단권 『신약전서』, 그리고 신·구약을 합친 단권 『성경전
서』가 출판되었다.⁵⁷⁾ 그리고 그 해 5월 첫 주일(5월 7일) 성서공회주일

55) W. D. Reynolds,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118.

56)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eds.,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11), 331; *Ibid.*, 6.

57) 「그리스도회보」 1911. 2. 10. 광고;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12), 6. 한국 기독교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11년 판 한글 성서 판권을 보면, 2권으로 분책된 『구약전서』는 서울 미국성서공회 발행으로 일본 요코하마 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명치 44년(1911년) 3월 2일 인쇄, 3월 6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권 『신약전서』는 서울 대영성서공회 발행으로 일본 요코하마 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2월 20일 인쇄, 2월 23일 발행으로 되어 있으며, 신약과 구약의 합본인 『성경전서』는 서울 대영성서공회 발행, 일본 복음인쇄합자회사 인쇄로 같은 해 3월 12일 인쇄, 3월 15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을 맞아 한국 교회는 성서 완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1911년 사업에 대한 한국성서위원회 보고 내용이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서공회주일을 지키고 있다. 특히 금년(1911년)에는 성서 전체를 번역,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드렸다. 한국 교회로서 금년은 토박이말로 된 성서 전체를 보유하게 된 첫 해이다.⁵⁸⁾

마침내 한국 교회는 ‘온전한’(whole) 한글 성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1882년 처음 만주에서 인쇄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쪽 복음’으로 기독교 진리를 접하기 시작한 우리 민족은 30년 만에 성서 전체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동안 단편적으로 맛보았던 ‘불완전한’ 복음을 이제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권 『성경전서』가 인쇄, 출판된 1911년 7월, 종로 큰 길가에 영국성서공회에서 2층 짜리 ‘성서회관’ 건물 정초식을 거행하였으니⁵⁹⁾ 그 의미도 컸다. 『성경전서』 출판과 함께 시작된 일제 시대, 그리고 해방 후 한국의 성서 번역과 출판, 반포 사역을 주관할 ‘항구적’(permanent) 사업 거점을 확보한 것도 성서 완역과 함께 축하할 일이었다.

58)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12), 6. 1900년 신약 성서를 출판했을 때 정동제일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연합 축하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신·구약 성서 출판 연합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한일합병’ 직후 일제의 무단 통치가 강화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는 1909-1910년 한국 교회가 전개한 백만명 구령 운동이 ‘불순한’ 민족 운동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였으며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항일비밀결사에 연루된 기독교인 수백 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의 대중 집회는 일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59) 봉헌 예배는 1912년 2월 3일에 드렸다. 「그리스도회보」 1911. 7. 15.

4. 성서 원역의 역사 신학적 의미

1891년 이후 성서 번역자회에 참여했던 게일은 1900년 『신약전서』 출판을 맞아 초기 선교사들이 추진했던 성서 번역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개척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성서를 번역하는 일이었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안 해 본 사람은 모른다. 뉴욕의 60층짜리 생명보험 빌딩을 짓는 일도 이 일만큼은 못하다. 자그마치 10년이 걸렸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파야하듯 문장들을 골라내고 단어들의 의미를 파헤치며 연습해오는 말라리아와 피곤과 싸우면서 선택하고 재어보고 판단하고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파나마 운하 하나 파는 것과 맞먹는 일로 여겨진다. 말 그대로 파나마 운하처럼 이 신약 성서는 두 개의 대양, 곧 하나님의 한 없으신 사랑의 대양과 인간의 무한정한 확장 욕구를 연결하는 운하이다.⁶⁰⁾

성서 번역을 뉴욕의 고층 빌딩 건축이나 파나마 운하 건설에 비유한 것은 그 과정의 지난(至難)함과 효과를 동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겠다.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빗대어 ‘하나님의 한 없으신 사랑의 대양과 인간의 무한정한 확장 욕구를 연결하는’(linking the ocean of God’s boundless love with the immeasurable expanse of human need) 운하로 해석한 것에서 성서 번역이 지니는 신학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성서 번역과 출판은 서로 다른, 이질적이고 낯선 종교와 문화,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고 연결하는 만남과 교류, ‘소통’(communication)의 통로가 되었다. 역사 신학적으로 그 소통의 가치와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60)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9), 175.

4.1. 성서를 통한 복음의 토착화

첫째, 성서 번역을 통해 복음과 민족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복음의 토착화가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는 성서 번역과 출판, 반포 작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람(선교사)보다 먼저 성서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렇게 전파된 성서는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던 구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개종을 결심한 세례 지원자들이 생겨난 상태에서 개척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일본에 들러 이수정 역 한글 성서를 갖고 들어왔던 개척 선교사들도 내한 직후 성서를 번역하는 일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선교 사역에서 가장 기초되는 어학 공부와 함께 성서 번역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성서를 이 민족에게 전달하려는 개척 선교사들의 의지였다. 그런 의지를 1887년 2월 성서 번역자회를 처음 조직한 직후 쓴 아펜젤러의 일기에서 읽을 수 있다.

어제(2월 7일) 이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성서 번역 위원회를 조직했다. 언더우드가 회장, 내가 서기가 되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번역 사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천천히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서두르기로 하였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성서를 이곳 백성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손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⁶¹⁾

기대한 대로 선교 초기에 찍어낸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시골 구석구석에 전파되었고 그것을 읽은 구도자와 개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문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성서 언어와 한민족 언어에

61) H. G. Appenzeller, *Appenzeller's Diary* (1887. 2. 8.).

똑같이 능통해야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의 공헌과 함께 이들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나아가 선교사를 도와 성서 번역에 참여했던 토착인 번역자들의 공로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⁶²⁾ 성서 언어에 능통한 선교사와 한국 언어에 능통한 토착 번역자들의 협력으로 성서의 의미는 한국어를 통해 ‘정확하게’ 한국인들에게 전달되었다. 백낙준은 초기 성서 반포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에서 성서가 이처럼 널리 퍼진 것은 선교사들이 택한 중요한 선교 방법론의 결과였다. 선교사들은 개종한 교인들에게 성서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서 한 질은 개인 소유로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서는 언제나 한국 교회에서 선도적(leading)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사경회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하게 성서가 반포됨으로 교인들은 성서 읽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운 사람은 남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려고 한다.⁶³⁾

한국 교회는 ‘성서 중심적’ 신앙으로 유명하였다. 사경회 문화도 그러하고 교리와 신조도 성서를 절대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라는 개신교 신앙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지만 유독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성서의 가치와 활용을 중시하였다. 이런 한국 교인들의 ‘성서 중심적’ 신앙 양태를 케이블(E. M. Cable)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곳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번역하고 반포하는 일이야말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임에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한국 교회의 전례 없는 성장과 발전은 전적으로 성서 활용에 있다고 하겠다.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1938년) 이곳엔 강력한 복음 전도 기관(성서공회)이 있다. 한국인들의 성서 사랑은 유별난(proverbial)

62)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465-499.

63) G.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The YMCA Press, 1929), 335.

것이 되었으며 개개인 교인들도 그러하지만 한국 교회는 지극히 성서 중심적(Bible centered)이다.⁶⁴⁾

그리고 이런 성서 번역과 반포 과정을 통해 말씀에 담긴 복음은 우리 민족 문화와 삶 속에 침투하였다. 복음의 의미와 가치는 언어와 삶을 통해 우리 민족 문화의 옷을 입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낯선 이방인의 종교로 인식되었던 기독교 진리가 ‘우리말’을 통해 우리 문화의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낯선 것이 익숙한 것으로’(from the alien to the familiar) 바뀌었을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성육신(incarnation) 사건이 우리 역사, 우리 문화 현장에서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 복음은 이 땅에 ‘토착화’(indigenization/enculturation)되었던 것이다.⁶⁵⁾ 성서 번역이 토착화의 기초 단계인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 성서를 통한 한글 보급과 실용화

둘째, 성서 번역으로 기독교는 한글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글의 재발견과 실용화가 이루어졌다. 한글은 15세기 세종대왕이 창제하였지만 한문 중심의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봉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랜 세월 한글은 ‘언문’ 혹은 ‘암글’이라는 명칭으로 천대를 받았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언어(특히 글)가 계층에 따라 세 종류인 것을 확인했다. 양반 지식인 계층이 사용하는 한문, 부녀자나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한글, 중간 계층이 사용하는 국한문 혼용체 등으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한 선교사들은 한글을 기독교 문서 언어로 채택하였다. 한 예로 1893년

64) E. M. Cable, "The Present Ver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4:5 (1938), 96.

65)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 교회 형성과 종교문화," 『한국 문화신학회 제8집: 한국에 기독교 문화는 있는가』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7-40.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장로회선교공의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성서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모든 (기독교) 문서는 한문을 섞지 않고 순전히 한글로 인쇄한다는 것이 우리 목표이다.” 라는 방침을 채택하여⁶⁶⁾ 성서와 찬송가 뿐 아니라 기독교 문서들을 한글로 번역, 인쇄하였다. 선교사들이 한글을 ‘선교 언어’로 택한 것은 그 편리함도 있었지만 양반 상류층보다는 민중, 소외 계층에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 정책 때문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글은 창제 이후 4백 년 넘게 지속된 ‘긴 잠’에서 깨어났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남달리 깊었던 게일은 한글의 우수성과 복음 전도의 유용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한국의 토착 문자(한글)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것임이 분명하다. 1445년 창안되었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먼지 속에 묻혀 지내면서 자신을 알아줄 이를 기다렸다. 쓰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 쉽다는 이유로 그동안 경멸을 받아 왔다. 부인네들이라도 한 달 정도면 깨칠 수 있으니 것처럼 쉬운 글이 또 있을까? 바로 이와 같은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그 문자는 신약 성서와 기독교 문서를 찍어내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까지 성서와 기독교 문서들은 대부분 놀랄 정도로 간편한 이 문자를 통해 인쇄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놀라운 섭리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자가 4백 년 동안 긴 잠을 자다가 마치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깨어나듯 이제 일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⁶⁷⁾

한글을 4백 년 후에 이루어질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총으로 표현할 정도로 게일은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하였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울 뿐 아니라 그 표현과 활용에서 세계 어느 언어보

66) C. C. Vinto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Sep. 1893.), 671.

67)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137-138.

다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한글을 통해 성서와 기독교 메시지는 우리 민족 각계각층에 쉽게 전달되었다. 결국 한글은 기독교와 만나면서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숨겨있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근대 문학의 창시자 이광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그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朝鮮人에게 준 것은 실로 耶穌敎會외다. 귀중한 新舊約과 讚頌歌가 한글로 翻譯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權威가 생기고 또 普及된 것이요. 昔日에 中國經傳의 諺解가 있었으나 그것은 普及도 아니 되었을 뿐더러 翻譯이라 하지 못하리만큼 拙劣하였소. 소위 ㅏ를 달았을 뿐이었소. 그러나 聖經의 翻譯은 毋論 아직 不完全하지마는 純朝鮮말이라 할 수 있소. 아마 朝鮮글과 朝鮮말이 眞正한 意味로 高尚한 思想을 담는 그릇이 됨은 聖經의 翻譯이 最初 일 것이요. 만일 後日에 朝鮮文學이 건설된다 하면 그 文學史의 第一項에는 新舊約의 翻譯이 記錄될 것이외다.⁶⁸⁾

특히 성경 66권이 순 한글로 번역되면서 한글 창제 이래 가장 많은 어휘와 문장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으니 한글로 모든 사상, 모든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성서와 기독교 문서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한 민족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실용화 작업을 했다. 배재학당 재학 중 미이미교회 인쇄소에서 한글 조판 일을 하다가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평생 한글 연구에 매진한 주시경을 비롯하여⁶⁹⁾ 그의 제자 김윤경·최현배·강병주 등 기독교인 한글학자들이 일제 시대 한글 운동을 통해 민족 문화와 전통을 지켰던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한글은 더 오랜 세월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68) 이광수, 「耶穌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9 (1917); 김희보, “춘원 문학과 성서,”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

69) 이덕주, “주시경의 종교행적과 신앙,”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4 (서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71-500.

최현배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이 여기(기독교)서 실현된 것”이란⁷⁰⁾ 표현이나 전택부의 “한글 성경은 한국 국어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⁷¹⁾이란 표현은 정확했다.

4.3. 성서를 통한 연합과 일치 운동

셋째, 성서 번역과 출판을 통해 교파와 교단의 장벽을 넘어 교회 일치(ecumenism)와 연합(cooperation)을 추구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은 성서 번역과 출판에서 비롯되었다 하겠다.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함께 내한한 장로회의 언더우드와 감리회의 아펜젤러는 한국에서 첫 사역을 내한할 때 갖고 들어온 이수정 역 마가복음을 공동으로 교정하는 일로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선교사들은 이 나라에 처음 들어온 직후부터 성서를 빨리 번역해야 하겠다는 필요에 직면하였다. 선교사들은 직접 이곳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먼저 이 나라 말을 배워야 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성서를 이 나라 말로 번역하기로 했다. 이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씀의 개념을 굳이 없이 이 곳 방언으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그 작업은 단지 문자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었다. 본래 성서 언어에 담겼던 의미를 담아 낼만한 한국어 어휘를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는 도착한 지 1년 안에 개인 역본이라도 만들자고 하였다. 그래서 1886년 초부터 아펜젤러와 내가 손을 잡고(united with) 마가복음 번역에 착수하여 그 해 말에 일을 끝내고 1887년 봄 스코틀랜드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에서 인쇄되었다.⁷²⁾

70)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76.

71) 전택부,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1980), 142.

72) H. G. Underwood, “Bible Translating,” *The Korea Mission Field* 7:10 (1911), 296.

이렇게 1887년 출판된 『마가의전훈 복음서언해』는 최초 국내 번역본이라는 점 외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의 ‘공역’(共譯)이었다는 점, 이 번역을 계기로 초교파적인 상임성서위원회를 조직하여 성서 번역과 출판, 반포 사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 조직된 상임성서위원회는 1893년 성서실행위원회를 거쳐 1904년 한국성서위원회로 발전하였다. 특히 한국성서위원회에는 그동안 별개 조직으로 한글 성서 번역과 출판을 지원하던 스코틀랜드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등 3개 성서공회 뿐 아니라 당시 한국에 진출하여 선교 활동을 펴고 있던 장로교와 감리교의 6개 선교회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연합 위원회(joint committee)를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명실 공히 한국 교회 최초의 ‘에큐메니칼 선교 단체’가 된 것이다. 이때 채택된 한국성서위원회 규약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³⁾

1조 명칭

본회는 한국성서위원회(Bible Committee of Korea)라 칭한다.

2조 권한

1. 위원회는 한국 내 성서 사업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3개 성서공회를 대표하는 총무와 위원회 과반수는 각각 거부권을 가지되 최종 결정은 3개 성서공회의 조회를 거친다.
3. 자금을 지원하는 3개 성서공회는 위원회 결정을 개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위해 3개 성서공회에 조회한 문제에 대해 3개 성서공회 다수 의견을 결정사항으로 간주한다.

73)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06), 5-6;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287-288.

3조 구성

1. 본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3개 성서공회를 대표하는 총무 중에서 서기와 회계를 맡는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15인 이상 되는 선교회에서 위원 2명을 파견하고 그 수준이 되지 못한 경우라도 한국에서 활동한 지 3년 이상 된 선교회에서 위원 1명을 파견한다.

2. 본회에 참여할 위원은 그가 속한 단체의 공인된 대표가 서명한 신임장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 투표는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 선교 활동이 3년 이하인 선교회는 위원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

3. 선교회 대표를 계수함에 선교사 부인은 제외한다.

4. 번역자회 위원은 번역 업무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위원회에 직권상(ex officio) 자문위원이 된다.

그리고 초대 한국성서위원회와 성서 번역자회 위원은 다음과 같았다.⁷⁴⁾

위원장: 무스(J.R. Moose, 남 감리회),

서기 겸 회계: 밀러(H. Miller, 영국성서공회),

위원: 아담슨(A. Adamson, 호주 장로회), 백크(S.A. Beck, 미 감리회), 케이블(E.M. Cable, 미 감리회), 해리슨(W.A. Harrison, 남 장로회), 전킨(W. M. Junkin, 남 장로회), 맥레(D. McRae, 캐나다장로회), 아담스(J.E. Adams, 북 장로회), 샤프(C.E. Sharp, 북 장로회),

번역자회: 언더우드(H. G. Underwood, 북 장로회), 게일(J.S. Gale, 북 장로회), 레이놀즈(W. D. Reynolds, 남 장로회), 스크랜튼(W.B. Scranton, 미 감리회).

실질적으로 오늘 대한성서공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성서위원

74)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06), 4.

회는 이후 전개된 성서 번역과 인쇄, 반포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 교파가 서로 다른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였다. 이러한 선교사 사이의 연합과 일치하는 한국 토착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선교 초기 한국 교회가 수립한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내한 선교사들이 소속 교파와 교단은 다르다 할지라도 선교 현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교회 일치 운동을 추구한 것이다. 교육과 의료, 문서 출판 등 초교파 연합 운동이 추진된 영역이 많지만 성서 사업에서 보여준 일치 운동 정신은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하나의 성서'(una biblia) 전통을 유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하나의 성서'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의 교회'(una ecclesia)를 추구하는 선교사와 토착 교인들의 의지와 협력이 있었다.

이런 성서 사업을 통한 초교파적 교회 일치 운동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전국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지키고 있는 '성서 주일'이다. 한국 교회가 성서 주일을 처음 지킨 것은 1900년으로 그 때는 '성서공회주일'이라 하여 5월 첫 주일에 지켰다. 그날 교회별로 성서 출판과 사업을 위한 예배와 헌금을 드렸는데 다음은 미 감리회의 서울지역 교회의 성서공회 주일 예배 상황에 대한 「대한크리스도인회보」의 보도다.

양력 오월 첫 주일은 성서공회일이라 영국과 미국에 다 이 풍속이 잇느니 성서공회는 전도하기에 대단이 유조흔거시라 첫지는 목스가 비록 전도홀지라도 성경척이 업시면 공부할 수도 업고 교회가 될 수 업슬거시오 들지는 성경을 번역하느디와 출판하느디와 책을 슈장하느디 월급과 삭돈을 모도 공회에서 지출하느니 만일 공회가 아니면 책을 만들수 업슬지라 그런즉 성서공회가 전도하느 나라에 불가불 잇슬거시라 이 날에 정동 목스[아펜젤러]씨셔 대한 국문으로 전통 번역흔 신약 성경을 상 우희 노코 전도하느 형대들은 춤 깃부고 치하홀 일이라. 정동회당[정동제일교회]에서 연보흔거슨 룩원 삼십팔전이오 달성회당[상동교회]에서는 오원가량이오 동문안회당[동대문교회]에서도 연

보훈지라. 대한교우들도 특별히 성서공회일을 작당하여야 시형하게 되면
우리는 도훈줄노 아노라.⁷⁵⁾

1900년 5월 7일,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드린 성서공회 주일은 마침
갓 인쇄되어 나온 『신약전서』 간행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어 토착 교인
들의 감회가 남달랐다. 지속적인 성서 사업을 위해 토착 교인들은 아낌
없이 헌금하였다. 그 결과 외국 선교사와 선교회, 선교부만 의존하던
성서 사업에 토착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선교부와 토착 교회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선교사와 토착 교인들의 연합과 협력, 일치
를 향한 의지와 노력으로 한국 교회는 ‘하나의 성서’ 전통을 백 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다.

5. 맺음 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10년 번역을 끝내고 이듬해 출판된 『성경전
서』는 해외에서 시작되어 국내에서 완성된 성서 번역과 출판, 반포
사역의 모든 과정과 흐름들을 종합하여 이룩해낸 결과물이었다. 이 작
업을 통해 선교사 번역자들은 한국 언어와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
면서 선교 초기에 나타났던 시행착오와 오류를 극복하고 협력과 일치
정신으로 신·구약 ‘온전한’ 성서를 번역, 출판할 수 있었다. 여기에 헵번
과 켄뮤어 등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먼저 축적된 성서 번역의 경험과
방법들이 국내 번역자들에게 전수되어 짧은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작
업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착된 성서위원회와 번역자회
의 기능과 역할, 원칙과 방법론은 이후 전개될 성서 사업의 방향과
기본원리가 되었다.

또한 1911년 인쇄된 『성경전서』는 한국 교회사와 한글 성서 번역

75) “성서공회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900. 5. 9.

사에서 '제1세대 성서'(The First Generation Bible)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성서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복음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제1기(1875-1910년)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성서 번역을 주도한 선교사들도 복음을 이 땅에 처음 전한 '1세대' 선교사들이었고 이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번역을 도운 토착인들도 '개종 1세대'들이었다. 이들 '1세대' 선교사와 토착인 개종자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낯설었다. 그러나 성서를 주고받는 행위로 시작된 이들의 만남은 신앙적 교류로 발전했고 나아가 성서를 번역하고 교정하는 작업에 동참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 작품인 한글 성서를 통해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 바뀌는 토착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신학적 의미가 있는 1911년 판 『성경전서』는 인쇄되어 나오자마자 '개정' 작업 대상이 되었다. 신약은 1906년 인쇄된 공인 역본이었지만 구약은 번역자회와 성서위원회 검토를 거친 '시험 역본'(tentative version)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인 역본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성서위원회와 번역자회는 구약을 공인 역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전면적인 개역(revision)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배경을 케이블은 이렇게 증언했다.

구약 전체가 번역되었고 이듬해(1911년) 출판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역사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다.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 적절한 예배가 드려졌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시험 역본으로 나온 성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물밀듯이 들어온 서양 사조, 확장된 고고학과 언어학 지식들로 언어가 급속하게 변하고 풍부해짐에 따라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조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번역 본문을 개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⁷⁶⁾

76) E. M. Cable, "The Present Version," 98.

이처럼 번역본이 나오자마자 개역에 착수한 것은 번역이 잘못되었 다기보다는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맞는 번역을 내리는 성서위원회와 번역자들의 의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언어’(tongue of the time)로 번역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만들려는 고민과 의지였다. 그런 배경에서 성서위원회는 1911년부터 기존의 ‘성서 번역사회’(Board of Translators)를 ‘성서 개역사회’(Board of Revisers)로 바꾸어 ‘개역’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였다.⁷⁷⁾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개역 작업은 예졌던 것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니 번역에 노련한 1세대 원로 선교사들의 은퇴와 별세, 뒤를 이은 2세대 선교사들의 경험 미숙과 잦은 사역지 이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역 작업이 지연되었다. 결국 1920년대 중반 이후에야 개역 작업에 속도가 붙어 선교 50주년을 넘긴 1936년에 구약, 1937년에 신약 개역 작업을 마치고 합본 『개역 성경』을 펴낼 수 있었다.⁷⁸⁾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제2세대 성서’다.

제2세대 성서 출판을 끝으로 한국 교회 성서 번역사는 사실상 종료 되었다. 해방 직후(1953년) 새로 제정된 한글 맞춤법에 의해 표기법만 바꾼 한글 개역판 성경은 현재까지 70년 넘게 한국 교회 강단을 지배하고 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바뀐 언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번역과 출판을 시도한 적이 없지 않았으나 진화를 멈춘 한국 교회의 ‘보수적’ 환경에서 공인 성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한성서공회가 추진한 예만 들어도 1967년의 『새번역 신약전서』를 비롯하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공동 작품인 1971년의 『공동번역 신약 성서』와 1977년의 『공동번역 성서』는 교회 강단에서 철저히 외면당했고 새로운 언어 환경과 개신교회의 정서를 반영하여 만든 1993년의 『표준 새번역 성경

77) 1911년 당시 개역위원은 전부터 번역 위원으로 활동하던 언더우드와 게일, 레이놀즈 등 3명이었다.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12), 4.

78) E. M. Cable, “The Present Version,” 99.

전서』도 보수파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이단성’ 시비를 받으며 강제 퇴장당했다. 결국 개역 성경의 어색한 표현만 바꾼 1998년의 『개역개정판 성경전서』가 오늘 한국 교회 ‘주류 성서’로 강단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대 한국 교회 안에 성서 언어와 생활 언어의 불일치, 입말(言)과 글말(文)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진보적 가치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통 문화를 창출하는 청소년 세대에게 성서는 학교에서 ‘고어’(古語) 시간에 배우는 ‘죽은 언어’의 창고일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도 성서와 신앙 문화에서는 여전히 “~니라.”, “~더라.”, “~지어다.”로 통하는 ‘일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일제 시대가 시작되는 1910년에 성서 완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 논문을 쓰면서도 기분이 상쾌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교 초기 복음을 들고 당대의 언어와 문화에 가급적 가깝게 다가가려 노력했던 선배들의 의지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의 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진화가 멈추고 변화를 거부한, 그래서 한 세기 전에는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었던 기독교가 지금은 수구와 보수의 대변자로 바뀐 모습이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한국 사회와 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것이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소통’(communication) 구조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계일의 말처럼 성서 번역이 두 대양을 연결하는 운하와 같다면, 오늘 한국 교회 안의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교회 안 문화와 교회 밖 문화 사이의 불통을 소통으로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언어 공사’가 교회 안에서, 성서 번역에서 일어나야 하겠다.

<주요어>

한글 성서, 성서 번역, 토착화, 한글, 제1세대 한글 성서, 성서 번역자 회, 성서 위원회, 성서 공회, 성서 주일, 성서 사업,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Key Words>

Korean Bible, Bible Translation, Indigenization, Hanguk(Korean language), Korean First Generation Bible, Board of Translators, Korean Bible Committee, Bible Society, Bible Sunday, Bible Work, Ecumenical Movement, Ecumenism

* 접수일 2010년 3월 5일, 수정일 2010년 3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0년 4월 1일

참고문헌

- 「그리스도회보」 1911. 2. 10.
- 기독교대한감리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Henry Gerhard Appenzeller,”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3)*,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84, 68-69.
-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 3 (1967).
- 김정현, 『나악한(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 김중은, “최초의 구약 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 「교회와 신학」 13 (1981), 37.
- 김희보, “춘원 문학과 성서,”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
- 도원시, 『구약공부』, 간행자미상, 1893.
-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9. 2. 22.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로스 역의 번역 출판과 반포(1877~1887),”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36 (1986), 108-118.
-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기독교사상」 385 (1991), 157-166.
- “성서공회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900. 5. 9.
- 「신학월보」 1902. 8.
- 오윤태, 『한국 기독교사 IV- 선구자 이수정 편』, 서울: 혜선문화사, 1983.
- 옥성득, “개신교 전래기 신 명칭 용어 논쟁,” 「기독교사상」 418 (1993).
- 이광린, “이수정의 이물과 그 활동,” 『한국개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1969.
- 이광수, “耶穌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靑春」 9 (1917).
- 이덕주, “주시경의 종교행적과 신앙,”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71-500.

-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 교회 형성과 종교문화,” 『한국 문화신학회 제8집: 한국에 기독교 문화는 있는가』,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7-40.
-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 성서와 거래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이만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과 한국인,”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구리: 두레시대, 1998.
- 이만열, “이수정의 개정과 활동,”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구리: 두레시대, 1998.
- 이환진, “탁사 최병헌 목사의 <대한크리스도인회보>(1898-1899) 창세기 2장 번역 분석,” 『탁사 최병헌 목사의 생애와 신학』, 서울: 정동삼문출판사, 2008, 348-384.
- 전택부,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1980), 142.
-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76.
- 홍승표, “아펜젤러 조난사건의 진상과 의미,” 『한국 기독교와 역사』 31 (2009).
- Appenaeller, H. G., *Appenzeller's Diary* (1887. 2. 8.).
- Appenzeller, H. G. and George Heber Jones, “The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The Korean Repository*, Seoul: Trilingual Press, 1895.
- Barkwall, H. O. T., “Historical Sketch,”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Seoul: The Bible House, 1909, 15.
- Brown, G. T. , *Mission to Korean*, Richmond: Board of World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1962, 50, 74.
- Cable, E. M., “The Present Ver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4:5 (1938), 96.
- Corfe, C. J., “The Bishop's Letter,” *The Morning Calm* (Sep. 1893), 125-126.
- Fenwick, M. C., *The Church of Christ in Corea*, New York: Fleming H. Doran Company, 1911, 24.
- Gale, J. S., “Bible Transl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3:1 (1917), 53.
- Gale, J. S.,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9, 175.
- Jones, G. H., “Translating the Bible in Korea,” *World-Wide Missions* (May 1903).

- Knox, G. W., "Affairs in Korea," *Foreign Missionary*, New York: Mission House, 1883, 17.
- Loomis, H., *H. Loomis' letter to Dr. Gilman* (Feb. 20, 1891).
- Miller, H., "The Genesis of Agencies and Missions in Korea: The British Bible Societies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0-11.
- Paik, G. L.,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The YMCA Press, 1929, 335.
- Pieters, A. A., "First Transla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34:5 (1938).
- Reynolds, W. D.,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1:7 (1935).
- Reynolds, W. D.,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The Korea Mission Field* 2:6 (1906).
- Reynolds, W. D.,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The Korea Mission Field* 2:8 (1906).
- Rijutei, "Rijutei to the Christians of America, Greeting,"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Harrisburg: Missionary Review Pub. Co., 1884.
- Sweaver, Wilbur C., "Wreck of the Kumagawa Maru," *The Korea Review* (Jun. 1902), 247-250.
- The Bible House, ed., *Annual Report of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Seoul: The Bible House, 1906-1912.
-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eds.,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0-1903.
-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eds., *Foreign Transactions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06-1012.
- Underwood, H. G., "Bible Transl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7:10 (1911).
- Underwood, H. G.,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136.
- Vinton, C. C.,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Sep. 1893), 671.

<초록>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이덕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이 글은 1910년 번역을 끝내고 이듬해 출판된 신·구약 한글 성서의 번역과정을 정리하고 그 100주년의 역사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1870-1880년대 중국 만주에서 시작된 한글 성서 번역과 출판은 한국 개신교회 복음 선교의 단초를 제공했고 1885년 일본에서 인쇄된 한글 성서를 갖고 내한했던 개척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곧바로 성서 공동 번역에 착수하여 1887년 마가복음을 인쇄하였다. 이를 계기로 선교사들이 성서 번역자회를 조직하여 처음엔 일본과 만주에서 번역된 성서를 교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1893년 상임성서실행 위원회와 번역자회를 새로 조직하면서 개인 역→번역자회 역→위원회 역→시험 역→공인 역으로 이루어진 번역 원칙과 방법론을 제정하였다. 이런 원칙하에 전면적인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1900년에 시험 역본과 개인 역본이 혼합된 형태의 신약전서를 인쇄하였다.

이어서 1904년 영국과 미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한국 선교에 착수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들이 참여한 한국성서위원회를 조직하고 체계적인 성서 번역과 인쇄, 반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인 번역자들도 참여하는 성서 번역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신약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06년 공인 역본 신약전서를 인쇄하였고 이어 구약 성서 번역에 착수, 1910년 4월 번역을 끝내고 1911년 3월에 구약 전서 및 신·구약 합본 성경전서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한국 교회는 비로소 한글로 번역된 성서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신·구약 성경전서는 한국개신교회 선교 개척을 담당했던 내한 1세대 선교사들과 이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1세대 토착 교인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제1세대' 한글 성서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1세대' 한글 성서로 1910년 번역을 끝낸 신·구약 성서는 다음 세 가지 역사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성서 번역을 통해 복음의 토착화가 이루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화(成肉化) 과정처럼 성서 속에 담긴 기독교 신앙과 신학적 의미가 한글 번역을 통해 한국의 토착 언어와 종교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둘째, 성서 번역과 인쇄를 통해 한글의 과학적 연구와 실용화가 이루어졌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성서를 비롯한 기독교 문서를 한글로 번역, 출판하였는데 그 결과 세종대왕 창제 이후 4백 년 넘게 긴 잠을 자고 있던 한글의 실용화와 연구가 이루어져 한글이 '한국민의 생활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셋째, 성서 번역과 인쇄, 반포 사업을 통해 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이 촉진되었다. 외국의 3개 성서공회, 한국 선교에 임하고 있던 6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가 조직한 성서위원회는 물론 성서 번역자 회도 초교파적으로 조직, 운영되었는데 이를 통해 교파주의를 극복한 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성서'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Abstract>

Indigenization of the Gospel by 'the first generation Korean Bible': Historico-theological meaning of the centennial year of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whole Bible in Korea

Prof. Deok Joo Rhie

(Methodist Theological Univ.)

This is the centennial year of the translation of the whole scriptures, New and Old Testaments into Korean language. In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mission in Korea was the works of translation,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the Korean Bible tracts by the foreign missionaries and the Korean Christians in Manchuria of China before landing of the missionaries on Korea. And the pioneer missionaries, H. G. Appenzeller of the Methodist Church and H. G. Underwood of the Presbyterian Church landing at Korea on the Easter day of 1885 in possess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t. Mark printed in Japan, started their mission works together with the revision and translating of the Bible into Korean. They succeeded to print Korean revised version of St. Mark in 1887 when they, with other missionaries in Korea, formed the Permanent Committee of Bible and the Board of Translator for the future Bible works in Korea. In 1893 the missionaries in Korea renewed the Bible Committee and the Board of translator as the more enlarged interdenominational bodies and prepared the basic principle of translation of the Bible. In 1900 they finished translating and could print the New Testament as in both of the individual and the tentative versions.

From then the board members began to revise the individual versions of the NT and could provide a tentative version of whole NT in 1904 when the Bible Committee was reorganize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ree foreign Bible Societies and six missions of the Methodist and the Presbyterian Churches, the board of translators with the foreign missionaries and the native Christians.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e board took impetus to revise the tentative version of NT so could print the first authorized version of NT in 1906. Thence board members made haste to translate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and could report of the completion of translation in 1910 and print-

ing of the Korean OT and with the NT in one volume for the first time in 1911. It was thirty five years since the Scotland missionaries ventured to translate the Gospel into the Korean language in Manchuria and twenty five years since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ies reached Korean shores with a Korean version of St. Mark.

So thus the Korean people and the Christians were able to read in their own tongue the whole Bible, the first generation Korean Bible, a product of cooperation of the first-coming missionaries and the first-converted native Christians in Korea. We can find in this first generation Korean Bible three historico-theological meanings. Firstly, there came to be indigenization of the Gospel in Korean religious culture through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 Namely the incarnation of the word to the life and the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was done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the practice of the Biblical messages in Korean linguistic form. Secondly, the Korean vernacular Hangul began to be studied scientifically and treated as an authorized language through translation and printing of the Bible in Korean. From the early days of the Christian mission the foreign missionaries found the scientific superiority and efficiency in Hangul and determined to publish all the Christian books in Hangul. So it awoke from a long sleep of four hundred years and took successfully the position of an authorized popular language of the Korean people. Thirdly, Bible works initiated and provided the basic ground of ecumenical movement in Korea. Mission works in Korea began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ethodist Appenzeller and the Presbyterian Underwood in translation of St. Mark and building of the Bible Committee and the Board of Translators as an interdenominational body. Thence the ecumenical work embracing of translation, publishing and distribution of the Korean Bible help Korean Church to sustain the tradition of 'one Bible for one Church' in Korea.

